

2024년 8월 18일(주일) 제1696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4 다음세대와 함께 하는 교회사랑 프로젝트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 개최
2024. 10. 18(금)-19(토)

10.18(금)부터 10.19(토) 양일간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란 지금까지 이어져온 서울교회 바자정신을 아름답게 계승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나눔 장터입니다.

교인 기업 중심의 상품을 구성 및 판매하며 교회학교와 연계한 나눔 장터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 섬기는 사람들 -

- 지도목사 : 김익환 목사
- 본부장 : 김승록 장로
- 차장 : 예만식 안수집사
- 지원 : 김영희 안수집사
- 기획부장 : 장상국 / 오선혜 김의정 김동욱
- 재정부장 : 오명걸 / 정경자 최복희
- 판매관리부장 : 이겸손 / 이원석2 고민정
- 섭외특판부장 : 최근우 / 김지욱 차주호 하상영
- 중고장터부장 : 손태현 / 김광래 심상필 최죽희 박복순
- 홍보부장 : 김금재 / 김영숙 유은경 예상영
- 시설관리부장 : 장창수 / 황병석
- 차량관리부장 : 김웅기 / 조서현 정성우2
- 식당관리부장 : 임우택 / 최중희

2024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 강좌 | 요일 및 시간 | 기간 | 강사 / 담당 | 장소 |
|-------|-------------------|----------------|---------|-----------|
| 고린도전서 | 화, 오전 10:30-12:00 | 9.3-10.22 (8주) | 최종국 목사 | 서울교회 603호 |
| 욥기 | 금, 오전 10:30-12:00 | 9.6-10.25 (8주) | 장석남 목사 | 서울교회 603호 |
| 살롬대학 | 목, 오전 10:30-13:30 | 9.5-11.7(10주) | 박미라 전도사 | 서울교회 101호 |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

9월 4일(수)

혹서기를 맞아 잠시 방학을 가졌던 다락방 리더훈련이 9월 4일(수) 개강합니다.

영동시찰회

서울강남노회 제75회 정기회를 위한 영동시찰회가 8월 22일(목) 오전 11시 현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석하는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회원 : 손달익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장로총대 :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김광태 백도환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내 인생에 있는 예수 흔적

(갈 6:11-18)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 예수 믿는 냄새가 나고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요 14:8)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들로 가득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그의 대표적 교회론입니다. 이 이론의 최우선적

이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교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교회가 혼돈에 빠졌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론적 가르침과 책망의 말씀을 한 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그를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참 사도의 증거가 그 몸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갈라디아 교회의 아픔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 방문하여 전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의 도시들을 포함한 넓은 지방입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지역을 방문하며 심혈을 기울여 갈라디아 지역 전도와 교회 양육을 위해 노력했고 갈라디아 교회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들이 변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일부 강경한 유대주의자들이 벌인 소동에 아직 믿음이 어렸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격하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2. 바울의 강력한 도전

율법주의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바울의 사도직은 자칭 사도로서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는 이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바울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하여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갈 5:2-4)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임명받고 사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선택되고 부름받아 사도 된 것임을 명백히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 시비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시비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8)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온유한 성품을 말하고 서로 하나 될 것을 주장하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며 성도들을 흠여지게 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응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많이 애용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거대한 세력인 가톨릭의 교황청과 세속권력의 힘에 맞서서 무너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람이 강탈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려 자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에게 끝없이 도전 정신과 용기와 꿈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호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팡이 하나 들고 혈혈단신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결연함이 우리에게 부족

하고 850명 이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처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좀 더 확실해 집시다. 좀 더 강해 집시다. 좀 더 거룩한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으로 헌신합시다.

3 예수 흔적이 있는 인생으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의 몸에 핍박으로 인한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런 흔적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한 육체 흔적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14절)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온몸에 가득하고 온 인생에 가득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던 것은 그만큼 많이 활동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사상가였고 신학자였고 영성가였지만 동시에 매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삶의 이력 속에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약 교수 George E Wright 박사는 그의 저서인 'God Who Acts, 활동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만물이 창조되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하고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하시던 예수님은 많은 상처를 입으시며 기어이 십자가를 지셨고, 일했던 바울은 온몸에 예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실 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실 때 주님은 더욱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천국 잔치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처도 받고 흔적도 생기겠지만 천국은 이런 분들을 위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된 곳입니다.

18강 : 사도신경-성자 하나님(3)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구원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한 구원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구원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난/고통이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악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를 사용하여 대속적 고난이라는 개념도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흑인

여성신학, 라틴 아메리카 여성신학, 아시아 여성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신학자들은 고난/고통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제시합니다. 소위 제3세계 여성 신학자들은 고난/고통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고난/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 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들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간주하기 보다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기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분’이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죽으심과 부활을 구분하지 말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죄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38문 :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그리스도가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진술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란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39문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

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0문 :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죄를 대속한다’고 할 때 ‘대속’은 죄 값을 정확하게

다 지불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값은 너무나 커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 값을 치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문을 대조해 가면서 확인해 보면 그 죄는 ‘배은망덕’이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죄

는 다 용서해도 배신은 용서가 안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입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곧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형당해 마땅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41문 :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입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장사”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확증과 연결시킵니다. 이 사실과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서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자신에게 닥칠 일을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그들에게 보여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40 (개역개정).

예수님께서서는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장사되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낮은 여름, 무더위 잘 이겨냈시다



이종욱 안수집사
(의료선교부 부장)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제 1회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 강좌'를 많은 성도님들의 호응 속에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주위에 다양한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

역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층들의 경우, 쉽게 탈수 증상을 일으키며 응급상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무더위와 관련된 질환은 식중독, 열사병, 냉방병 등이 있고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어 예방과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리된 음식을 드셔야 하고 음식을 드시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밖에서 외출이나 일하실 때는 새벽이나 저녁에 외출하시고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합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25도로 하시고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환기 등을 합니다. 이번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10월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영양-식사'입니다. 무더위 속에 입맛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고 불균형한 식사를 하면 영양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근력도 약화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찬 음식만을 선호하다 보면 설사 등의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 참외, 포도 등의 과일과 야채 그리고 콩류를 비롯한 단백질 등이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남은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관리에 힘쓰셔서 더욱더 건강하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제공



- 4교구 윤은정 집사·김지유
2교구 이순례 은퇴권사
9교구 김정훈 안수집사·김희정 권사
(고 김진훈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 교구(부서): | | | 이름: | | | |
|---------|----|-------------|----------|-----|-----|--------|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매체인 성경통독 | | | |
| 8월19일 | 월 | 렘 35-38 | 삼상11 | 롬9 | 렘48 | 시25 |
| 8월20일 | 화 | 렘 39-42 | 삼상12 | 롬10 | 렘49 | 시26,27 |
| 8월21일 | 수 | 렘 43-47 | 삼상13 | 롬11 | 렘50 | 시28,29 |
| 8월22일 | 목 | 렘 48-49 | 삼상14 | 롬12 | 렘51 | 시30 |
| 8월23일 | 금 | 렘 50-51 | 삼상15 | 롬13 | 렘52 | 시31 |
| 8월24일 | 토 | 렘 52, 애 1-2 | 삼상16 | 롬14 | 애1 | 시32 |
| 8월25일 | 주일 | 애 3-5 | 삼상17 | 롬15 | 애2 | 시33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마지막 더위로부터 심신을 지켜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랑과 겸손의 향내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소서.
- 청년부수련회 8월 22일(목)-24일(토)에 성령충만의 은혜 내려 주시고, 4대 담임목사님 청빙 과정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인도하소서.
-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세계복음화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헌
- ◇ 협동목사
양정호

◇ 시무장로

-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장소 |
|-------|-----------|-------------|
| 주일 예배 | 1부 예배 | 오전 9시 |
| | 2부 예배 | 오전 11시 |
| | 3부 예배 | 오후 2시 |
| | 찬양 예배 | 오후 4시 30분 |
| 수요 예배 | 1부 예배 | 오전 11시 |
| | 2부 예배 | 오후 7시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30분 | 웨스트minster홀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장소 |
|-------|----------------------|------|
| 영아부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403호 |
| 유아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6호 |
| 유치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2호 |
| 유년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1호 |
| 초등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601호 |
| 중등부 | 오전 9시 - 10시 30분 | 501호 |
| 고등부 | 오전 9시 - 10시 20분 | 101호 |
| 청년부 | 오후 3시 30분 - 5시 | 601호 |
| 신혼가정부 | 오후 12시 30분 - 2시 | 606호 |
| 사랑부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603호 |
| 소망부 | 오전 10시 10분 - 11시 | 102호 |
| 신앙강좌부 |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 602호 |
| 새가족부 |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 202호 |
| 세례교육부 |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 609호 |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